

의료윤리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의 활용

권복규*, 장두이**

들어가는 말

도덕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의 의의와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으나, 의료윤리 교육 분야에서는 그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의료윤리(생명의료윤리) 교육은 관련된 철학적 원칙의 이해, 여러 학과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숙지,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론(딜레마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의대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도덕교육”과 “생명의료윤리교육”의 관점과 교육목표의 차이, 그리고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인에게 정작 중요한 부분은 생명의료윤리학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전문직윤리(professional ethics)”의 측면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¹⁾

이상적인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은 다음 네 가지의 차원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특정 상황을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 두 번째 그 상황의 도덕적 갈등 요소를 명료하게 분별하며 각 행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세 번째 의료윤리의 원칙과 자신의 가치관, 사회문화적 관습 등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인 도덕적 추론을 하는 것, 네 번째로 예상되는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린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교육 목표는 강의와 토론의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달성이 쉽지 않으며,

* 가천의과대학교 교양학부

** 대경대학 연극영화과

- 1)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윤리교육”의 범주 안에서 “도덕교육”과 “생명윤리교육”, 그리고 의사(의대생)의 “전문직윤리교육”이 혼동되고 있다. 물론 이 세 영역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함의는 차이가 있다. “도덕교육”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윤리교육”은 안락사·낙태·복제 등 생명과 관련된 근본적인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전문직윤리교육”은 환자의 비밀보호, 환자를 대할 때의 에티켓 등 의사의 직무윤리와 관련이 있다. 이 점을 혼동할 때 ‘윤리를 강의한다고 윤리적인 의사가 되지는 않는다’, ‘윤리는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회의론이 생겨난다. 이상적인 의료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 2) 이 단계는 도덕적 사태의 인지에서 도덕적 행위로 귀결되는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4 Component Model)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Rest에 따르면 이 단계는 ① 도덕적 사태의 지각(moral sensitivity) ②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③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④ 4)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로 구성된다. 洪性勳. 醫療倫理教育프로그램의 開發研究. 서울

피교육자 자신이 깊은 정서적 충격을 통해 체험을 내면화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각종 예술 활동은 인간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연극은 삶의 근원적인 갈등과 모순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감상자를 상황에 대한 단순한 “분석자”가 아닌 “참여자”로 이끌어들이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해 보는 것은 그 느낌과 정서적 충격을 배가시키며 피교육자로 하여금 해당 상황을 이전과는 매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채택능력”은 도덕적 판단능력의 발달을 위한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³⁾ 도덕교육에서 인지발달론을 발전시킨 Kohlberg에 의하면 이 역할채택은 타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유형화시키는 능력이다.⁴⁾ Kohlberg의 인지발달론을 의료윤리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⁵⁾ 역할극은 이 역할채택능력을 발달시키는 좋은 훈련과정이 될 수 있으며 Shaftel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효과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⁶⁾ 즉 1) 역할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과정을 촉진시킨다 2)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킨다 3) 상호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4) 역할채택능력을 증진시키고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게 한다 5) 실제 경험할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는 훈련이 된다 6) 비현실적인 역할지각을 교정한다.

이러한 효과는 의료윤리교육 뿐 아니라 다른 인성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은 가천의과대학교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학년도 1학기에 실시한 <환자,의사,사회 II>프로그램 중 의료윤리역할극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윤리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의 사용방법, 의의, 효과를 서술한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41-42

이를 수정한 이유는 의료윤리영역에서는 대상자(환자)에 대한 공감(sympathy)과 연민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절대적인 가치판단이 흔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 3) 李明姬. 道德教育의 方法으로서의 役割劇의 效果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 16
- 4) 李明姬. 위의 논문 13쪽. 그러나 이와 같은 Kohlberg의 입장은 사실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도덕적 인지발달과정의 측면에서 역할채택능력을 본 것으로, 본 논문이 지향하는 청년기나 성인기의 도덕발달과정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文龍麟. 道德科教育. 서울 ; 甲乙出版社, 1988 : 142) 그러나 도덕적 사태의 지각과 추론 과정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은 부정하기 어렵다.
- 5) 예컨대 말기 환자의 퇴원요구 딜레마를 가정해 보자. 이 딜레마는 두 개의 윤리적 층위를 가진다. 즉,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 보장/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생명윤리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그 환자나 가족이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꺾어야 하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이 그것이다. 의사 역시 도덕적 행위자로서 그 갈등의 주체가 된다. 생명윤리학적 분석은 가치를 명료화하는 좋은 분석도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매 사안마다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장치를 통해 다양한 입장을 모색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Kohlberg 등의 인지발달이론은 전자의 층위와는 별 관련이 없으나 도덕적 행위자로서 관련 당사자들의 도덕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실제 의료현장의 윤리적 갈등 사례는 비율은 다양하지만 이 두 층위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6) Shaftel F, Shaftel G. Role Playing in the Curriculum. N.J. ; Prentice Halls 1982 : 4-5
 . 李明姬의 논문에서 재인용 : 19-20

본문

프로토콜 소개

본 프로그램은 가천의과대학교 의예과 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01년 1학기에 <환자·의사·사회 II> 과목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 과목은 매주 1회 4시간으로 이루어지며 1 quarter는 의료윤리교육, 2 quarter는 지역사회 의료체험으로 구성되었다. 1 quarter의 학습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환자·의사·사회 II과목 1 quarter 수업계획서

날짜	내용	목적	방법
1	3/2	수업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2	3/9	의사-환자관계의 여러 문제들/윤리적 문제	의사-환자관계의 특수성 이해, 윤 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 이해
3	3/16	의료윤리의 대원칙	의료윤리의 원칙 이해
4	3/23	중환자와 관련된 윤리 (진실을 말하기, 안락 사)	중환자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의 이해
5	3/30	생식 관련 윤리 (낙태,인공수정,대리모)	인간 생식과 관련 된 윤리적 문제들 의 이해
6	4/6	동료 의료인 관련 윤리 (선배,동료,타직종)/한국 의사윤리강령 소개	동료 의료인 관련 윤리 및 한국 의사 윤리강령의 이해
7	4/13	첨단의학과 관련된 윤리	첨단의학과 관련 된 윤리문제의 이 해
8	4/20	중간고사	

위 계획표에서 실제 역할극을 활용한 것은 3회로 “중환자와 관련된 윤리”, “생식 관련 윤리”, 그리고 “동료의료인 관련 윤리” 부분이였다. 생명의료윤리의 여러 영역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한 것은 갈등 사례의 구성이 비교적 용이하며, 의료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갈등이기 때문이다. 첨단의학, 또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윤리문제는 유전자치료, HGP, 의료정보, 인간복제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각 조에서 토론하고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역할극 session에서는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해 30분 정도의 간략한 강의를 한 다음, 그 날의 증례를 OHP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을 10명씩 4개 조로 나누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연극을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4개 조가 모두 역할극을 하는 것 보다는 다양성을 가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3개 조는 연극을 만들고, 나머지 1개 조는 그 날의 증례에 따라 다른 형식의 과제를 부과하였다. “중환자와 관련된 윤리”영역의 프로토콜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중환자와 관련된 윤리” 프로토콜

수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의적/비자의적,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지속적식물상태(PVS)와 뇌사의 차이를 설명한다. 3. 중환자의 퇴원과 관련된 법률적,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한다. 4. 중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의료인, 가족, 환자 본인)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증례	<p>김영수씨는 올해 64세 된 남자로 사업실패 후 집에서 소일하고 있었다. 1달 전 그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신경과를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전신마비, 심한 호흡부전, 의식상실이 있었으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따금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사지마비는 물론, 음식을 삼킬 때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부인은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길 것을 고집하였다. 일반 병동으로 이송한 후 첫날 환자가 음식을 먹던 중 음식 일부가 기도를 막아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의 뇌손상은 더욱 악화되어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시켰다. 그 상태로 3일이 지난 뒤 환자의 부인은 어차피 가망이 없다며 주치의에게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치의는 지금 퇴원하면 퇴원 즉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들어 퇴원을 거부하였다. 부인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혹시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전신마비의 불구가 될 것이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켜 할 일을 다했으니만큼 목숨에 미련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환자의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역시 퇴원을 요구하였으며 의사와 병원측에 아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보호자 연대로 썼다. 주치의는 할 수 없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을 시켰으며 환자는 퇴원 후 2시간만에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p>
조별 과제	<p>1조 과제 : 위 상황을 의사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dramatize 하여 제시하십시오. (시간 10분)</p> <p>2조 과제 : 위 상황을 환자 가족과 의사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dramatize 하여 제시하십시오.(시간 10분)</p> <p>3조 과제 : 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dramatize 해 보십시오.(시간 10분) “환자의 부인과 아들/며느리는 퇴원을 시키자고 주장하나 딸과 사위는 그래서 안 된다고 고집한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극화하십시오.”</p> <p>4조 과제 : 위와 같은 경우 사전에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여 두는 것을 “사전 지시(advance directive)”라 한다. 위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취급 방법을 사전 지시의 형태로 작성해 보십시오.(퇴원/치료 계속 둘 중 택일)</p>

학생들이 토론을 하여 시나리오를 짜고, 역할극을 만드는 데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수업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였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였으며, 오후 1시에 다시 집합하여 역할극을 공연하였다. 공연 시간은 각 조 당 10분 정도로, 소품을 옮기고 정리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3개 조가 모두 마치는 데는 약 45분 가량이 걸렸다. 이후 “사전지시” 작성을 한 조의 발표가 끝나고 30분 동안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증례를 이해하고, 이를 시나리오화해서 연출하는 데 2시간은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으나 본교 학생들은 의예과 1학년 2학기에 모두 “드라마 워크숍”이라는 연극 수업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시간 내에 비교적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학생들의 공연 모습은 다음 사진과 같다.

사진 1. 학생들의 공연모습 1



사진 2. 학생들의 공연모습 2.



공연이 끝난 후의 토론 시간에는 현직 연극배우이자 연출가의 강평을 듣고, 다음 세션의 준비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나, 본 프로그램의 성격이 연극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강평 역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역할극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예, 관련 법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가 설명하도록 했다.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당일의 활동내용과 주어진 증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A4 3매 내외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서술할 학생의 반응은 이 보고서에 의거한 것이다.

교육효과 및 학생 반응

전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이 <역할극>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 흥미와 관심도는 4.5, 유익함은 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⁷⁾ 의료윤리 주제의 이해에 역할극이 도움이 되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33%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5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 8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림 1. 의료윤리주제 이해에 대한 역할극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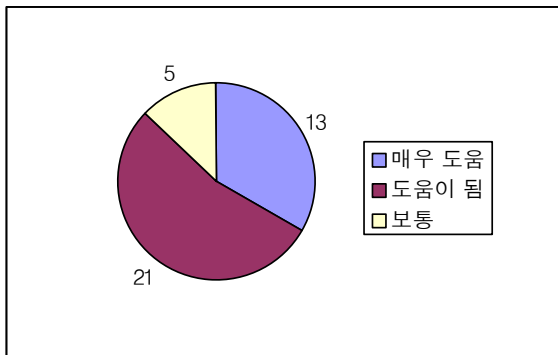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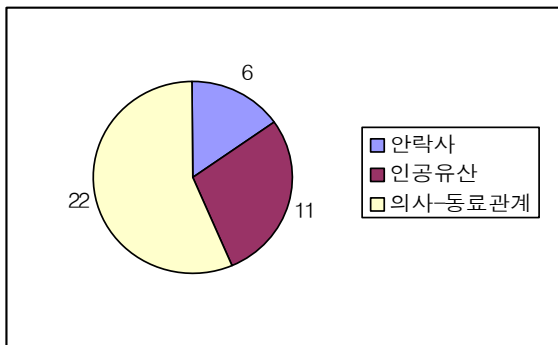


그림 2. 주제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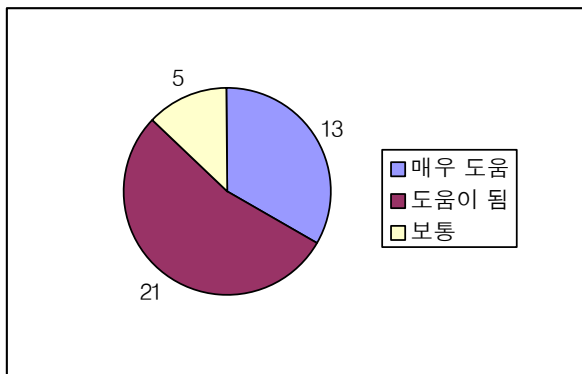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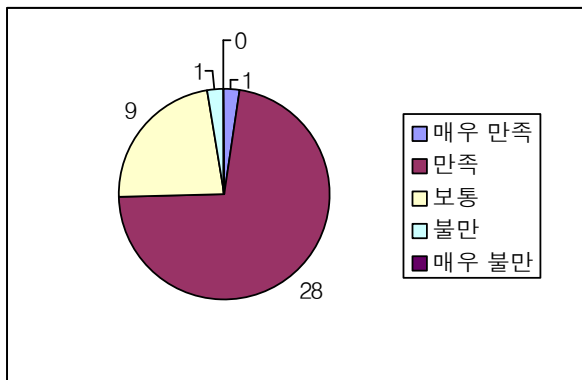


또 중환자의 안락사/인공유산/의사-동료관계의 세 주제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을 묻는 질

7) 이것과 비교하여 토론식 수업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8.3%, 그저 그렇다가 36.1%로 나타났다. 전기홍, 송미숙. 의료윤리 교과목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한국의학교육 1997 ; 9(2) : 129-137

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22명)가 “의사-동료관계의 갈등”을 지목하였다. 반면 “안락사”는 15%(6명)에 그쳤다. 이는 중환자의 안락사 문제가 가장 처음에 시도한 주제였고, 시간이 가면서 학생들이 이 수업형식에 익숙해졌으며, 의사-동료관계의 갈등을 의사가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으로서 보다 실감나게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74%(29명)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역할극 구성 및 연습 과정에서 조별 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역할극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이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33%(13명)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3%(21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림 3. 조별활동에 대한 만족도



실제 학생 반응은 수업감상문에 쓴 내용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1.

...이 시간에서의 도덕적 문제는 윤리와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이었다. 또한 조 단위로 토론하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에 의한 판단보다는 모든 조원의 생각까지 공유할 수 있어 좋았고...의사뿐 아니라 환자, 가족 등 제 삼자의 입장을 취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학생 강○○-

예 2.

...처음에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이 섰지만 생각을 계속 해보고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김○○-

예 3.

...드라마는 조금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토론만 하면 되었지 무슨 드라마인가...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드라마 수업을 하고 나니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역을 생각하며, 연기하며 부족하나마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학생 이○○-

예 4.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전 같았으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간호사의 잘못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간호사는 말 그대로 간호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간호만 하면 되는 것이지...그런데 역할극에서 간호사의 역을 맡아서 간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간호사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무라고 생각되었다.

-학생 김××-

예 5.

...이번 연극을 통해 많은 걸 느꼈다. 환자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갈등하는지를. 그리고 의사 역시 환자를 둘러싼 관계 중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도. 환자와 주변인물들 사이에서 오고갔을 대화들을 연극을 통해 표출해보고 경험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한가지 있었다. 바로 모든 문제의 중심은 환자이며 그가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한 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 정○○-

물론 부정적인 반응 역시 없지는 않았다. 감상문을 통해 학생들이 제기한 부정적인 문제들로는 1) 주제에 대한 성찰보다 재미에 치우친 점이 일부 인정된다는 것, 2) 짧은 시간 내에 연극을 구성하다보니 갈등 양상이 평면적이 된다는 것, 3) 투자한 시간에 비해 지식을 얻은 것은 적다는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조별 활동을 통해 동료 학생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하였다.

논의

학생들의 소감을 종합하였을 때 본 프로그램에서 역할극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1. 구체성

막연하고 추상적인 윤리적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생생하게 다가온다. 의료윤리교육에서 증례의 제시는 보통 위 수업 프로토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증례 지문이나 보다 발전된 경우에는 비디오물 등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며 그 결과 학생들은 내용의 숙지와 논리적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할극은 증례에 내재한 갈등을 바로 그들 ‘자신’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큰 정서적인 반향을 가져온다. 이는 어떤 상황을 ‘윤리적 문제’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2. 다양한 관점의 제시

학생들은 주어진 증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증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갖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증례에 대한 토의는 대부분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갈등 상황의 제시는 주인공(agonist)인물과 그에 맞서는 대항인물(antagonist)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이 바로 토론이 된 것이다. 대화형식을 빈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의 갖가지 요인들을 찾아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조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되었다. 한 개 조 조원들의 다양한 입장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다른 맥락에서 구성하게 한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조의 역할극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은 “저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다양한 관점(perspective)에서 윤리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3. 공감

다양한 인물을 스스로 연기해 봄으로써 학생은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예 4>를 쓴 학생이 대표적인데 그 학생은 자신이 간호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의사의 역할을 한 다른 학생과 맞서는 연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간호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감은 단지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의 연기를 보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주인공과 자신의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서 가능하였는데 예컨대 아이를 낙태한 산모의 역을 맡은 한 학생은 “아이를 떼는 것이 저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동료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⁸⁾ 이는 연기가 뛰어나서라기보다 연극에 수반되는 직접성과 현장성, 체의적 성격이 함께 작용하여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공감(sympathy)”는 의료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환자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며, 인성교육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8) “...이 극은 산모의 연기력이 극을 압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산모가 느낄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의사의 결정에 따라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김△△ 학생의 수업감상문에서 인용.

4. 사고의 전환

위에 인용한 감상문(특히 예 4)에서 보이듯 학생들은 역할극을 만들고, 또 관람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고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과정은 물론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역할극은 그 과정을 더욱 빠르게 촉진시키는데 상대에 대한 설득이 단지 논리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생은 한 가지의 상황에서도 각각의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여러 차례의 사고의 전환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었고,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5. 논리적 결론 도출

필자는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갈등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역할극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사후 감상문에서 자신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였다. 물론 모든 학생이 언제나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지는 못했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며 고민하는 흔적이 나타났다. 예 5의 감상문은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바로 모든 문제의 중심은 환자이며 그가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한 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는 결론은 바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지만 학생은 이를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암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고민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후에 유사한 증례를 겪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의 훈련을 제공한다.

6. 정서적 변화 및 상상력의 고양

단순하지만 역할극 역시 연극의 일종이므로 학생들은 스스로 연기하고, 또 동료들의 연기를 감상하면서 정서적 감흥을 느끼게 된다.⁹⁾ 자아를 표현하는 예술 형식 중에서 연극은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육체성을 가지므로 그 감흥의 폭 역시 깊을 수밖에 없다. 이 극들은 매우 유치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단막극이었지만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주었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자세 역시 매우 진지하였고, 극의 진행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연극을 통한 인물의 표현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인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관찰력, 상상력 및 표현력을 고양시킨다.¹⁰⁾ 이러한 능력은 컴퓨터게임 및 영상광고물에 익숙하여 깊이 있고 지속적인 감정 표현에 서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충만하고 깊이 있는 의사표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힘겨운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해야만 하는 의사직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 사실 역할극에 이러한 연극의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된 역할극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즉 자칫하면 갈등의 원인인 문제 그 자체보다는 연기라는 형식적인 요소에 치우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연극적 성격을 부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다 사실감 있는 표현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자들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노력이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유도하기도 할 것이며 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극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0) 창조적인 사람은 자기의 주위 환경을 생생하게 의식하며...관찰·집중·감각회상능력은 창조적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극의 새로운 이해와 활용. 서울 : 행림출판. 1989 : 45.

결론 및 제언

강의와 지식전달에 치중하는 종래의 교육방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의료윤리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즉,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의료윤리교육은 의료윤리학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청각자료의 활용, 딜레마토론, 체험학습,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예술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역할극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모색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역할극은 주어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의 폭을 심화시키며, 주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대상 인물과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며, 정서적인 고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좋은 윤리 교육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역할극을 통해 길러지는 연극적 자질인 관찰력, 집중력, 감각회상능력, 공감능력, 자기표현력, 감정억제력, 동료와의 협동능력 등은 바람직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성들이다. 따라서 역할극은 윤리교육은 물론, 환자-의사관계, 의료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방법론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할극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10명 내외의 조별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연극과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담당할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연극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또 많은 학교들이 교육용 비디오 카메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연기를 촬영한 후 이를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내용을 토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쉽게 연극화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증례의 발굴과 개발 역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색인어 : 역할극, 의료윤리교육, 의사소통

= ABSTRACT =

A Study on Use of Role-Playing in Medical Ethics Education

KWON Ivo*, CHANG DuYee**

Role-Playing has been thought as a useful education tool in the moral education field. It helps the students 1) engage the class more actively, 2) communicate each other more effectively, 3) overcome the selfishness, 4) experience the future expected roles, 5) correct the unreal role-consciousness, 5) stimulate the thinking/problem solving process.

We applied role-playing to medical ethics education for 2nd year medical student class, and got some satisfactory outcome. This class consisted of 4 parts; 1) case presentation, 2) discussion and drama-making, 3) drama playing, 4) professor's critic and review of the case. Most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class works (74%) and understood the themes of medical ethics more efficiently (86%). They also answered it would be helpful for them in the future life as medical professional (86%).

To our experience, role-playing has other educational benefits as a kind of drama. It can make the students involve the case more deeply, and sympathize the people appeared in the case. Sometimes it can promote imagination, observing power, and expression ability. All of them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medical ethics education or personality education.

Key Words : role-play, medical ethics education, communication

*Gachon Medical School, **Taekyeung College Faculty of Theatre, Film and Broadcasting